

40번째 구절의 숨겨진 역사 - 번호 4

시험과 승리: 짐승의 우상의 형성과 지혜로운 자들의 인침

Jeff Pippenger

2024-09-23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됨으로 대표되는 시험을 보여 주는 예언의 노선은, 헌법의 노선을 대표하는 세 개의 이정표와 병행한다. 이 둘은 서로 병행하면서, 상대 노선을 다루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어떻게 해서 짐승의 우상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미국에서의 일요일법으로 시작되는 박해의 때 동안,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할 준비가 되겠는가? 짐승의 우상 형성의 시험에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슬기 있는 처녀들을 인쳐 그들이 미국에서의 일요일법으로 시작되어 국가적 배도 뒤에 국가적 파멸이 뒤따르고 사탄이 그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박해의 기간을 헤쳐 나가도록 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가?

하늘의 영광과 과거 박해의 재현이 한데 어우러질 때, 땅에 살아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경험을 조금이라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악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증언, 9권, 16쪽.

화이트 자매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 논평한다. 그녀의 논평은 'The Desire of Ages'의 'The Crisis in Galilee'라는 장에 실려 있다. 거기서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난 반역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셨음을 강조한다. 그분은 공생애 전체를 통틀어 그때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잃게 되는 때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그러하셨다.

예수께서 많은 제자들이 돌아서게 만든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말씀의 결과가 어떠할지 아셨다. 그러나 그분께는 이루어야 할 자비의 목적이 있었다. 그분은 유혹의 때에 사랑하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을 미리 보셨다. 겐세마네에서의 그분의 고뇌와 배반과 십자가형은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이 될 것이었다. 만일 앞서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순전히 이기적 동기로 움직이던 많은 이들이 제자들 무리에 끼었을 것이다. 그들의 주께서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으실 때, 그를 왕으로 환영하던 무리가 그를 향해 야유하고 모욕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그들의 세속적 야망이 좌절될 때, 이기적인 자들은 예수께 대한 충성을 버림으로써, 그들이 가장 간절히 품었던 소망이 무너진 데서 오는 슬픔과 실망에 더하여 제자들에게 쓰리고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그 어둠의 시간에, 그분에게서 떠난 자들의 본이 다른 이들과도 그들을 따라 떠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함께 계심으로 아직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을 때 이 위기를 불러일으키셨다.

자비로우신 구속주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온전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그 길을 부드럽게 예비하시고, 그들의 결정적인 시련에 대비시키시며, 마지막 시험을 위해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 시대의 소망, 394.

일요일 법령은 품성이 드러나는 최종 시험이다. 최종 시험 전에,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그리고 일요일 법령에서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이다. 그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그들의 정점의 시련을 위해 준비시키고, 최종 시험을 위해 강하게 하는" 예언적 시험이다! 그들의 "정점의 시련"은 곧 그들의 정점의 시험이다. 이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최종 시험이 곧 그들의 정점의 시련이며, 그 시험의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짐승의 형상의 형성"으로 표현된 그 시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그들의 정점의 시련에 대비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은 무엇인가?

그가 일곱째 인을 여시자, 하늘에는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는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섰다.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는데,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한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고, 그러자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8:1-5.

말세에, 열 처녀의 비유가 성취되고 있고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이 땅으로 던져지는 일을 가리킨다. 열 처녀의 비유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될 때 던져지는 그 불은 한밤중 소리의 기별이며, 이는 엑서터 야영회에서의 성령의 부어 주심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그때는 불로 나타났다)으로 예표되었다. 한밤중 소리의 기별에 대한 화이트 자매의 논평을 주목하라.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로도 유익을 얻을 수 없었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한밤중의 외침으로부터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선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그토록 어둡게 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 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 빛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거기에서의 예수의 증보로부터 아무 유익도 받을 수 없다. 무익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신 처소를 향하여 무익한 기도들을 드린다. 그리고 사탄은 그 기만을 기뻐하며 종교적인 외양을 취하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인 이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자기의 권세와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자기 울무에 단단히 묶어 둔다. 초기 저술, 259-261.

밀러파 역사에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에 대한 시험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 역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지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이 둘은 모두 품성이 드러나는 은혜 기간의 종결로 이끄는 시험이다. 밀러파 신자들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은 다시 한 번 시험을 받았다. 14만 4천의 믿음은 일요일 법령 때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는 2023년 7월에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봉함을 풀기 시작할 때 열렸던 일곱째 인으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 그들이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봉인이 풀린 기별은 늦은 비의 방법론인 줄 위에 줄의 방법론을 통해 확립된다. 늦은 비는 2001년에 뿌려지기 시작했고, 재림주의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다. 2023년 7월에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그것은 또한 늦은 비이며,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생겨나는 지식의 증가이고, 일곱 우레의 봉인이 풀림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하다—이 선포되면서, 일요일법령에서 끝나는 시험 과정의 마지막 기간이 시작되었다. 예언적 빛의 봉인이 풀림을 나타내는 모든 줄은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서 봉인이 풀린 것으로 확인된다.

그 숨겨진 역사 속에는 헌법의 세 가지 주요 이정표를 잇는 선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여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때를 가리키는 선이다. 그 안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다루는 예언적 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화주의 뿔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투쟁의 역학이 드러난다. 그 선에는 미국의 두 주요 정당의 병행하는 역사도 포함된다. 그 선은 1844년 그 시작부터 일요일 법령에서 그 뿔이 세속 정부의 통제를 찬탈할 때까지 배도한 개신교의 뿔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배도한 개신교의 예언적 역할에는 배도한 개신교의 상징으로서 하스몬 왕조의 증언이 포함된다. 배도한 개신교의 뿔의 흐름이라는 배경 속에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흐름도 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흐름에서 14만 4천의 흐름이 나온다. 그 숨겨진 역사에는 셋째 화의 이슬람의 흐름도 있다. 러시아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고, 유엔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으며, 물론 교황권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다.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말세를 사는 베로아 사람처럼 힘써 연구한다면, 그는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에서 식별되는 여러 선들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 예언의 학생은 천사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여 먹을 것이다. 그런 다음 일요일 법령의 최종 시험이 도래할 때, 그는 봉인이 풀린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 미국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인의 빛은 보좌로부터 나오며, 열 처녀의 비유의 맥락에서는 그것이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이다. 한밤중 외침의 이 메시지는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되는 시기를 대비하도록 슬기로운 처녀들을 준비시킨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전진해 온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시 밟아 보니,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31쪽.

주님께서는 2023년 7월에 시작된 시험의 과정에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와 관련하여 예언의 말씀을 열어 주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역사는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종말 사건의 그 요소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 준다. 우리가 일요일 법령의 때,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되기 시작하는 그 최종 시련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의 그분의 가르침을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일요일법령 때,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기간에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마지막 기별의 봉인을 여시고 자신의 백성을 사십 절의 숨겨진 역사로 인도하셨다. 거기서 그분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후의 위기에서 그분의 대표자가 될 그분의 백성 가운데 들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경험을 얻는 특권과 책임도 가르치셨다.

그 부류의 사람들의 예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보좌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 행하는 법을 안다는 것이다. 그 빛은 사십절의 감추어진 역사의 빛으로,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을 세우는 데 관련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학을 세세하게 설명한다. 이 거룩한 역사와 관련해 인식되는 그 빛은 줄에 줄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겨나며, 과거의 박해가 다시 시작될 때의 역사를 밝히는 빛이다.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자들이 곧 지혜로운 자들이며, 지식의 증가는 짐승의 우상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 역사가 도래하기 전에 세상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역사를 미리 이해할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께서는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신다.

화이트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이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대목은 Testimonies 9권 첫 장의 결론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장은 11쪽에서 시작하므로, 곧 '9-11'에서 시작하여, 마무리는 주일법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거기에는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고 14만 4천이 나타나는 시기가 묘사되어 있지만, 그 장을 그런 방식으로 볼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렇다.

제9권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그 점을 명시하며 시작하고, 제목으로 '왕의 오심을 위하여'를 사용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열 처녀의 비유도 분명히 가리키는데, 이어서 해당 부분의 제목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절 - 왕의 오심을 위하여

"아직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37."

다음 두 구절은 생략되어 있지만, 본문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아직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0:37-39.

바울은 신실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가 "멸망으로 물러난다"고 말한 자들과 대조되는 하박국을 언급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의 영혼이 높아져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하박국의 지체의 때는 열 처녀의 지체의 때이며,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한 말과 연결된 오시는 왕을 다루는 장은, 이 장의 완전한 성취와 적용이 14만 4천 명의 인침 기간에 있음을 밝힌다. 그 기간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어 일요일 법령으로 끝나는데, 이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의 마지막 위기이며,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일요일 법령에서 품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장의 마지막 단락들은 일요일 법령을 다루고, 그 장은 2001년 9월 11일을 다루면서 시작한다.

마지막 위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빠르게 성취되어 가는 시대의 징조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엄숙하고 중대한 때이다. 하나님의 영이 점차 그러나 확실하게 이 땅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재앙과 심판이 임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정, 전쟁의 위협은 불길한 전조다. 그것들은 가장 중대한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다.

악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결속을 다지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대위기를 대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세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최종 국면은 급속히 전개될 것이다.

세상의 형편을 보면 험난한 때가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간지들은 가까운 장래에 닥칠 참혹한 분쟁의 징후로 가득하다.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파업은 흔하다.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귀신들린 자들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악에 현혹되어 있으며, 온갖 종류의 악이 판치고 있다.

원수는 정의를 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리사욕으로 채우는 데 성공하였다. '정의를 멀리 물러나 있고, 진리는 거리에서 쓰러졌으며, 공평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사야 59장 14절. 큰 도시들에는 가난과 비참 속에 살며 먹을 것과 거처와 의복이 거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같은 도시들에는 마음이 바라는 것 이상을 가진 자들도 있어 사치스럽게 살며, 돈을 호화롭게 꾸민 집과 개인적 치장에 쓰고, 더 나아가 육욕을 만족시키는 일, 술과 담배, 그리고 두뇌의 능력을 파괴하고 정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영혼을 타락시키는 다른 것들에게까지 쏟아 붓는다. 굶주리는 인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온갖 형태의 압제와 착취로 사람들이 거대한 재산을 쌓아 올리고 있다.

한 번은 뉴욕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이, 더 높이 치솟았고,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자기들의 재원을 투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계획과 궁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곧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를 망각했다.'

이러한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수록, 소유주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웃들의 시기를 불려일으키는 데 쓸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가혹한 수탈과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착취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기록되며, 모든 불의한 거래와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더 이상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우뚝 솟아 있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든 것처럼 모조리 타 버렸다. 소방차는 파괴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장비를 가동할 수 없었다.

나는 주님의 때가 오고도 교만하고 야심찬 인간들의 마음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하시기에 강하던 그 손이 멸하시기에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지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품은 것에 대해 그들에게 보응을 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건물들을 멸망에서 보존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의 현 상태를 낳은 근본 원인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교육자와 정치가들 가운데서도 많지 않다. 국정을 맡은 이들은 도덕적 타락, 빈곤과 빈민 문제, 그리고 증가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 운영을 더 안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강탈과 착취로 막대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모았다. 보라, 너희 밭을 베어 추수한 일꾼들의 삯을 너희가 속여 떼어 둔 그것이 부르짖고, 추수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였으며, 도살의 날에 하듯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5:3-6.

그러나 급속히 이루어져 가는 시대의 징조들이 주는 경고를 누가 읽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인상을 주는가? 그들의 태도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태도에서 보였던 것 이상은 없다. 세상 일과 쾌락에 몰두하던 홍수 이전 사람들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데려가기까지 알지 못하였다."(마태복음 24:39)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보내신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그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곧 예언들에 언급된 환난의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보라, 주께서 땅을 비우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그것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사방으로 흩으신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소고의 즐거움이 그치고, 기뻐하는 자들의 소리가 멎으며, 수금의 기쁨도 그친다.' 이사야 24:1-8.

"슬프다 그 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과 같이 그 날이 임하리라.... 씨앗이 그들의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곡간들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창고들은 무너졌으니,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얼마나 신음하는가! 소 떼가 풀밭이 없어 방황하며; 참으로 양 떼도 수척해졌도다.'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었으며;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도, 들의 모든 나무가 다 말라버렸으니: 이는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요엘 1:15-18, 12.

'내 마음 깊은 곳이 아프도다; ... 나는 잠잠할 수 없나니, 오 내 영혼아,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라. 파멸 위에 파멸이라 외치도다; 온 땅이 황폐하였음이라.' 예레미야 4:19, 20.

'내가 땅을 보니, 보라, 그것은 형체도 없고 공허하였고;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그것들이 떨었고, 모든 언덕들이 흔들렸다. 내가 보니, 보라,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늘의 모든 새들은 다 날아가 버렸다. 내가 보니, 보라, 기름진 곳은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성읍들은 무너져 있었다.' 23-26절.

"슬프다! 그 날은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도다. 그것은 곧 야곱의 환난의 때이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0:7.'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편에 선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불충하게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소수가 있다. 이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12. 머지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니, 그리하여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남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든 면에서 방해하려 한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 박해의 재현이 뒤섞이는 때에 이 땅에 살아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경험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악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온갖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행하는 데서 안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행해질 기적들을 가짜로 흉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연단되고 시험된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31장 12-18절에 말한 표징에서 그들의 능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은 그 날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특히 제4계명을 중히 여김으로써 구별될 것이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표이며, 사람이 그분께 경외와 경배를 바쳐야 한다는 그분의 권리를 증언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쁨을 허물고 로마의 제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 쟁투의 결말에 그리스도교계 전체는 두 큰 부류로 나뉠 것이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권세를 합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모두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16. 밧모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진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다. 요한계시록 15:2.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운 시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영이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민족들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난의 때(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사탄과 그의 무리는 그들을 멸할 수 없다. 이는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증언, 제9권, 11-17.

'하나님의 시련을 겪어 검증된 백성'이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인 14만 4천 명은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때 '흔들리지 않고 설 것이다'. 그들이 '그 가운데 행할' 빛은 일곱째 인의 기별, 곧 한밤중 외침의 빛이며,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을 식별하게 하는 빛이다.